

문학

국어 영역

1월호

교재의 사용법

이 교재는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로 학습한 학생들의 추가적인 학습을 돕기 위한 교재입니다. 각 파트별로 자세한 설명을 실어두지 않고 문제와 해설만 제공하기에,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로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이라면 해설 내용을 완벽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한 학생들이라면 공부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 교재는 총 네 달에 걸쳐 업로드됩니다. 자세한 일정 및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달 말일 업로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1월호 :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1권에 대한 워크북 (1)
 - 2월호 :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1권에 대한 워크북 (2)
 - 3월호 :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2권에 대한 워크북 (1)
 - 4월호 :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2권에 대한 워크북 (2)
- 6월 모의평가 이후 : 1월호+2월호(=P.I.R.A.M 국어 생각 워크북 1권) / 3월호+4월호(=P.I.R.A.M 국어 생각 워크북 2권) **합본으로만 판매**

이 교재는 기본적으로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의 목차를 그대로 따릅니다. (교재 내 ‘생각의 시작’ 파트는 이 교재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1월호와 2월호는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1권의 목차에 맞는 지문들을, 3월호와 4월호는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2권의 목차에 맞는 지문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 교재는 매달 독서 18지문 / 문학 23지문이 수록됩니다. 위 표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6월 모의평가 전에는 1월호~4월호를 따로 판매하고, 6월 모의평가 이후에는 “P.I.R.A.M 국어 생각 워크북 1권”과 “P.I.R.A.M 국어 생각 워크북 2권”의 이름으로 합본으로만 판매합니다. 합본의 정가는 1권/2권 각각 12,900원이지만, **합본이 되기 전 구매하시는 분들은 매월호를 4,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2,900원→9,800원 : 합본 기준 약 25% 할인)

이 교재는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를 완전히 끝내신 후 복습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로 공부하면서 한 파트가 끝날 때마다 확실하게 체화하기 위해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에 실린 지문들보다는 대체로 쉬운 편에 속하는 지문들이기에, 말 그대로 ‘복습 및 적용’의 느낌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교재까지 공부하시면 ‘8개년(2017~2024) 전 지문을 포함한 17개년(2008~2024) 주요 지문’을 학습하게 됩니다. 욕심이 난다면 17개년 전 지문, 나아가 20개년 이상의 전 지문까지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까지 완벽하게 공부하시면, 나머지 지문들은 스스로 해설을 만들면서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공부법은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실어드릴 테니, ‘생각의 힘’을 키운다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파이팅입니다.

채점 전

1. 교재에 제시된 각 파트별 설명을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고 정리한다.
2. 그 내용을 상기하며 뒤에 있는 문제들을 ‘시간을 재고’ 푼다.
3. 채점을 하기 전에 ‘시간 제한 없이’ 모든 문장을 분석하고 이해한다.
4. 문제를 다시 분석적으로 푼다. 이때 모든 선지에 대해 이 선지가 왜 맞는 지, 틀린지를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채점 후

5. 해설지를 통해 자신의 사고과정과 해설지의 설명을 비교한다.
6. 해설지를 덮은 뒤, 해설지의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섞어 본인 스스로 모든 풀이 과정을 설명해본다.
7. 이번 공부에서 배운 점을 정리한다.
8. 다음 지문을 학습할 때 그 내용들을 의식하며 공부한다.

피렘의 국어공작소 카페

<https://cafe.naver.com/piramgukeo>



피렘 스페셜 페이지

<https://special.orbi.kr/piram2025/>



피렘 국어 구매처 (대부분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

<https://atom.ac/>



For 2025 피렘 국어 안내

<https://orbi.kr/00065274355>



생각의 전개

시와 수필 : 운문문학은 주제 중심으로 해결한다.

[28~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9.11

(가)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갈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물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세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돌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나)

크낙산 골짜기가 온통
 연록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신록이 우거졌을 때
 그곳을 지나가면서 나는
 미처 몰랐었다

뒷절로 가는 길이 온통
 주황색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무더기로 바람에 떨어지던 때
 그러니까 낙엽이 지던 때도
 그곳을 거닐면서 나는
 느끼지 못했었다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눈발이 드문드문 훑날리던 날
 앙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 **나뭇잎 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그 많은 나뭇잎들
 사라지는 것을 보여 주면서

- 김광규, 「나뭇잎 하나」 -

(다)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 말에 비로소 들어
 상사(相思)하던 우리 님을 꿈 가운데 해후하니
시름과 한(恨) 못다 일러 한바탕 꿈 흩어지니
아리따운 고운 얼굴 곁에 얼핏 앉았는데
 어화 아득하다 꿈을 생시 삼고지고
 잠 못 들어 탄식하고 바빠 일어나 바라보니
 구름산은 첩첩하여 천리몽(千里夢)을 가려 있고
 흰 달은 창창하여 두 마음을 비추었다
좋은 기약 막혀 있고 세월이 하도 할사
 엇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붙었더니
 그 곁에 **홀홀하여*** 잎에 가득 가을 소리라
새벽 서리 지는 달에 외기러기 슬피 울 제
 반가운 님의 소식 행여 올까 바라더니
 아득한 구름 밖에 빈 소리뿐이로다
 지리하다 이 이별이 언제면 다시 볼까
어화 내 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
 이리저리 그리면서 어이 그리 못 가는고
 약수(弱水)* 삼천 리 멀단 말이 이런 곳을 일렀구나
 산 머리에 조각달 되어 님의 낮에 비추고자
 바위 위에 오동 되어 님의 무릎 베고자
 빈산에 잘새 되어 북창(北窓)에 가 울고자
 지붕 위 아침 햇살에 제비 되어 날고지고
 옥창(玉窓)의 앵두화에 나비 되어 날고지고
 태산이 평지 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도록
 평생 슬픈 회포 어디에 건주리오

- 작자 미상, 「춘면곡(春眠曲)」 -

* 홀홀하여: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 약수: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는 강 이름.

[A]

2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②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여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한다.
- ④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 ⑤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는 시상이 확산되고 있다.
- ② ㉠과 ㉡ 모두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 ④ ㉡은 ㉠에 비해 역동적인 느낌이 두드러진다.
- ⑤ ㉠은 사실의 기술이, ㉡은 관념의 표현이 부각된다.

30. (가)와 (다)를 대응시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첫 번째 '아아'와 (다)의 두 번째 '어화'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탄의 표현으로 볼 수 있군.
- ② (가)의 '차디찬 티끌'과 (다)의 '새벽 서리'는 허무하게 깨진 인연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통하네.
- ③ (가)의 '꽃다운 님의 얼굴'과 (다)의 '아리따운 고운 얼굴'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 ④ (가)의 '눈물'과 (다)의 '시름과 한'은 이별로 인해 생겨난 슬픔이라 할 수 있어.
- ⑤ (가)의 '다시 만날 것'과 (다)의 '좋은 기억'은 '님'과 만나고 싶은 소망과 관련되겠군.

31.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님의 침묵」에서 '노래'와 '침묵'은 화자와 '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시어이다. 한용운은 시 「반비레」에서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랫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그러/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에요”라고 했다.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에서 '님'의 실재를 본 것이다. 화자는 '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데, 시 「나의 노래」에서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계신 님에게 들리는 줄”을 안다고 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노래가 제 곡조를 못 이긴다는 것은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화자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 ②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재하는 '님'과 깊이 교감한다는 뜻이야.
- ③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나아간다고 한 데서 '사랑의 노래'가 자연 친화적임을 알 수 있어.
- ④ 침묵을 휩싸고 도는 노래가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
- ⑤ 침묵하는 '님'에게서 노랫가락을 역력히 듣는다는 데서 '사랑의 노래'가 화자의 노래가 아니라 '님'의 노래임을 알 수 있어.

32.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1연, 2연에서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② 1~3연에서 '골짜기'→'길'→'대추나무'→'나뭇잎 하나'로 시적 대상이 바뀌면서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 ③ 1~4연에서 '그러니까', '문득', '마침내'와 같은 부사는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 ④ 4연에서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 ⑤ 4연에서 화자는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조나 가사에는, 임과 헤어져 있는 화자가 어떤 특정한 자연물로 다시 태어나서 임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진술이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진술은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기 위한 관습적 표현인데, 그 속에는 당대인들의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 인간과 자연이 깊은 관련을 맺으며 조화를 이룬다는 인식, 현재의 인연이 후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순환적 인식 등이 그것이다. 시가에 담긴 이러한 인식은 화자가 현실의 고난이나 결핍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①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한 것은 개인적 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겠어.
- ② 비슷한 의미 구조를 지니는 구절을 거듭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소망이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어.
- ③ '오동', '제비', '나비' 등이 사용된 데서, 인간과 자연이 관련되어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어.
- ④ '조각달'이나 '잘새' 같은 소재에는 '님'과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이 담겨 있어.
- ⑤ 자연물로 변해서라도 '님'과 만나려 하는 것을 보니 화자가 '님'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어.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0.06

(가)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물음 땅에 시며든 더운 김이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나.
 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박나비*처럼,
 가녀린 머리, 주사* 짝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多神教徒)와도 같이.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보체노나!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아득한 하늘에는
 별들이 참별 날으듯 하여라.

[A]

[B]

[C]

- 정지용, 「발열(發熱)」 -

* 박나비: 흰체비불나방. 몸이 흰색이고 배에는 붉은 줄무늬가 있음.
 * 주사(朱砂): 짙은 붉은색의 광물질로, 한방에서 열을 내리는 데 사용하였음.

(나)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디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위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바깥은 거친 들 이리떼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쏘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들 곳 몸들 곳 없어지다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D]

- 김영랑, 「거문고」 -

* 기린: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는 상상 속의 동물.

(다)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 대 울 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매우며
 굽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쪼그마한 솟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피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마을 길 끊어 놓을 듯
 은하수가 평평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쪼그마한 솟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피닥이며……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매죽나무와 때 끊이는 외딴집 굴뚝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E]

- 최승호, 「대설주의보」 -

13. (가)~(다)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느끼게 한다.
- ② (가), (다)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시적인 여운을 준다.
- ③ (나), (다)는 의인화된 사물을 등장시켜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 ④ (가), (나), (다)는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대상의 현재 상황을 부각하여 시적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14. 다음은 (가)를 영상시로 제작하기 위한 계획서이다.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의 사항	· 카메라의 위치와 움직임은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른다. · 낭송, 영상 및 음향 효과는 시의 내용과 표현에 따른다.
[A]	ㄱ. 카메라 시선을 위쪽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림. ㄴ. 화면을 점차 뿌옇게 처리.
[B]	ㄷ. 붉은색이 두드러지는 영상과 가쁜 호흡의 음향 사용. ㄹ. 클로즈업 기법 활용. ㅁ. 5행과 10행은 영탄적 어조로 낭송.
[C]	ㅂ. 카메라 시선을 밤하늘 쪽으로 옮겨 원경으로 담아 냄. ㅅ. 빛이 흩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영상 효과를 줌.

- ① ㄱ, ㄴ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을 제시하고 작품 초반부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효과적이겠군.
- ② ㄷ은 안타까운 상황과 분위기를 전달하고 '애'가 겪는 고통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 ③ ㄹ로 '애'의 모습을 담으면 감상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겠군.
- ④ ㅁ은 화자의 간절한 심정과 내면 심리를 엿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어.
- ⑤ ㅂ, ㅅ은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를 보여 주는 데 효과적일 것 같아.

15. <보기>의 설명을 듣고, 학생들이 (나)와 (다)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김 선생님 : 순수 서정 시인 김영랑은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더 이상 마음속 울림을 담은 가락으로 빚어낸 시를 쓸 수 없었어요.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거문고는 이런 현실을 우의적 표현으로 비판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1980년대 초반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은 대설주의보를 읽어보지요. 이 작품은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해서 강압 통치를 했던 시대와 관련이 깊습니다.

- ① (나)와 (다) 모두 생각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기에 창작되었어.
- ② (나)와 (다) 모두 고난 극복 의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지 않아.
- ③ (나)의 '울지를 못한다'와 (다)의 '내리는'은 모두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
- ④ (나)의 '기린'은 '노인'에게, (다)의 '굴뚝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존재야.
- ⑤ (나)의 '이리떼'와 '잔나비떼'처럼, (다)의 '술개'는 부당한 권력을 암시하는 소재야.

16. [D]와 [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D]와 [E]는 자아 성찰을 위한 내면의 공간이 나타난다.
- ② [D]와 [E]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보여준다.
- ③ [D]와 [E]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한다.
- ④ [D]에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이, [E]에는 화자와 대상의 일체감이 나타난다.
- ⑤ [D]에는 화자가 선택한 은거의 공간이, [E]에는 생명이 위협 받는 고립의 공간이 암시된다.

시와 수필 : 운문문학은 주제 중심으로 해결한다.
2009.11 [28~33] 현대시+고전시가 '님의 침묵 / 나뭇잎 하나 / 춘면곡' ☆☆

<보기> 독해

—<보 기>—

「님의 침묵」에서 '노래'와 '침묵'은 화자와 '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시어이다. 한용운은 시 「반비레」에서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랫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그러 /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예요”라고 했다.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에서 '님'의 실재를 본 것이다. 화자는 '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데, 시 「나의 노래」에서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계신 님에게 들리는 줄”을 안다고 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에 대한 <보기>입니다. 밑줄 친 두 부분을 바탕으로 하면, 이 작품에 나올 '침묵'과 '노래'의 의미를 알 수 있겠네요. 한용운 시인은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를 '님'의 실재를 보는 상태로, '노래'를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가) 작품의 화자는 부재한 '님'을 '노래'를 매개로 다시 만나고자 하는 내면세계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보 기>—

시조나 가사에는, 입과 헤어져 있는 화자가 어떤 특정한 자연물로 다시 태어나서 입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진술이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진술은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기 위한 관습적 표현인데, 그 속에는 당대인들의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 인간과 자연이 깊은 관련을 맺으며 조화를 이룬다는 인식, 현재의 인연이 후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순환적 인식 등이 그것이다. 시가에 담긴 이러한 인식은 화자가 현실의 고난이나 결핍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에 대한 <보기>입니다. 전형적인 고전시가의 내용임을 알려 주는 <보기>네요. 화자가 어떤 특정한 자연물로 다시 태어나서 입의 곁에 머물고 싶은 내면세계를 가지고 있을 것임을 생각하며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실전적 지문 독해

(가)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났던 옛 땀은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

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꼭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유명한 작품인 '님의 침묵'입니다. '님'은 떠난 상황이고, 화자는 이에 굉장히 슬퍼하다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는 모습입니다. <보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님'은 '침묵'하고 있지만 화자는 '노래'를 통해 '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나)

크낙산 골짜기가 온통
연록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신록이 우거졌을 때
그곳을 지나가면서 나는
미처 몰랐었다

뒷절로 가는 길이 온통
주황색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무더기로 바람에 떨어지던 때
그러니까 낙엽이 지던 때도
그곳을 거닐면서 나는
느끼지 못했었다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눈발이 드문드문 훑날리던 날
양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나뭇잎 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그 많은 나뭇잎들
사라지는 것을 보여 주면서

- 김광규, 「나뭇잎 하나」 -

화자는 '크낙산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봄여름을 지나 가을이 될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흐를 동안 무언가를 모르고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눈발이 훑날리는 겨울, '나뭇잎 하나'가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로부터 화자는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 여럿이 모여서 살다가 결국 저마다 한 개씩 떨어지는 나뭇잎들의 생리를 깨닫죠. 모든 시는 결국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는 한 명씩 태어나 여럿이 모여 살고, 결국 한 명씩 죽게 되는 인간의 일생을 이야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화자가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 말에 비로소 들어
상사(相思)하던 우리 님을 꿈 가운데 해후하니
시름과 한(恨) 못다 일러 한바탕 꿈 흩어지니
아리따운 고운 얼굴 곁에 얼핏 앉았는 듯
 어화 아뜩하다 꿈을 생시 삼고지고
 잠 못 들어 탄식하고 바빠 일어나 바라보니
 구름산은 첩첩하여 천리몽(千里夢)을 가려 있고
 흰 달은 창창하여 두 마음을 비추었다
 좋은 기약 막혀 있고 세월이 하도 할사
 엇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붉었더니
 그 곁에 훌훌하여* 잎에 가득 가을 소리라
 새벽 서리 지는 달에 외기러기 슬피 울 제
반가운 님의 소식 행여 올까 바라더니
아득한 구름 밖에 빈 소리뿐이로다
지리하다 이 이별이 언제면 다시 볼까
어화 내 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
 이리저리 그리면서 어이 그리 못 가는고
 약수(弱水)* 삼천 리 멀단 말이 이런 곳을 일렀구나
 산 머리에 조각달 되어 님의 낮에 비추고자
 바위 위에 오동 되어 님의 무를 베고자
 빈산에 잘새 되어 북창(北窓)에 가 울고자
 지붕 위 아침 햇살에 제비 되어 날고지고
 옥창(玉窓)의 앵두화에 나비 되어 날고지고
 태산이 평지 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도록
 평생 슬픈 회포 어디에 건주리오

[A]

- 작자 미상, 「춘면곡(春眠曲)」 -

* 훌훌하여: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 약수: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는 강 이름.

<보기>를 읽고 미리 생각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화자는 '남'을 다시 만나고 싶어 꿈도 꾸고, 자연물을 보며 기다리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모습이에요. 어차피 자세한 내용은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될 것이니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2%	4%	10%	5%	39%

2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①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명시적 근거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와 (나)에는 분명히 있고, (다)에 훌훌하여가 된 시간이 흐르는 거였는데... 아 엇그제가 있구나.
해설	일단 (가)에는 '남'과 함께 행복했던 과거의 상황이, (나)에는 화자가 깨달음을 얻기 전 과거의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그렇다면 이 선지가 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다)를 꼼꼼히 읽어서 근거를 찾아보면 좋겠죠? 이때 (다)에 각주 표시된 단어 중 '훌훌하여'가 있다

는 게 떠오릅니다. 각주 표시된 단어는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읽게 되는데, '훌훌하여'라는 단어를 읽으며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라는 뜻을 생각해냈다면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라는 말을 썼다는 건, 과거의 상황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돌아가서 확인해보니, '엇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붉었더니 그 곁에 '훌훌하여' 잎에 가을 소리가 난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이는 '엇그제' 붉었는데 벌써 가을이 될 정도로 시간이 흘렀다는 이야기이니,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여 화자의 서러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엇그제'라는 근거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 자체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단순히 '엇그제'라는 단어를 찾지 못하면 틀려야 하는 치사한 문제가 되니까요. '훌훌하여'와 같은 단어에 주목하든,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슬프다는 표현이 있었다는 걸 떠올리든 '엇그제'에 주목하기까지의 생각의 과정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가원은 늘 필연적인 사고과정을 전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는 것, 확실하게 알아둡시다.

②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여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가)에는 자연의 변화 같은 거 없었지.
해설	일단 (가)에는 '자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화자가 다시 '남'을 만날 것이라며 희망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어요. 물론 결국 '남'과 다시 만날 것이라며 화자의 미래를 암시하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자연의 변화'를 통해 암시한 것은 아니지만 말이예요. 한편, (나)와 (다)에는 모두 계절의 변화라는, '자연의 변화'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지는 않죠? '자연의 변화'를 통해 (나)에서는 화자의 인식 변화를, (다)에서는 화자의 슬픈 정서를 강조할 뿐입니다.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나)에서 나뭇잎을 예찬하지는 않지.
해설	먼저 (가)와 (다)의 경우,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및 '꽃다운 님의 얼굴', '아리따운 고운 얼굴' 등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인 '남'을 예찬하고 있네요.

러므로 '유종' 입장에서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네요.

어쨌든 '아사녀'는 남편을 만나러 왔다가 죽게 되었는데, '아사달'은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아사달-아사녀' 설화는 워낙 유명한 내용이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결엔지 아사녀의 환영은 깜박 사라져 버렸다. 아까까지는 어땀이라든 짐작되던 그 혼적마저 놓치고 말았다. 아무리 눈을 닦고 돌 얼굴을 들여다보았으나 눈매까지는 그럴싸하게 드러났지만 그 아래로는 캄캄한 밤빛이 쌓인 듯 아득할 뿐. 돌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골머리만 부질없이 헝헝 내어 돌리었다. 그러자 문득 그 돌 얼굴이 굴실 움직이는 듯하며 주만의 얼굴이 부시도록 선명하게 살아났다. 마치 어젯밤의 아사녀의 환영 모양으로.

그 눈동자는 때죽때죽 애원하듯 원망하듯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다.
[A] “이 돌에 나를 새겨 주세요. 네, 아사달님. 네, 마지막 청을 들어주세요.”
그 입술은 달짝달짝 속살거리는 것 같다.

'아사달'은 '아사녀'를 생각하며 돌을 다듬고 있었는데, '아사녀'의 환영이 사라진 뒤 '주만'의 얼굴이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아사달'도 '주만'을 나름 좋아했나 보네요. [A] 부분은 '아사달'의 상상일 텐데, 그 내용을 보면 '아사달'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죠?

아사달은 정을 켜 체로 머리를 털고 눈을 감았다. 돌 위에 나타난 주만의 모양은 그의 감은 눈시울 속으로 기어들어 오고야 말았다. 이 몇 달 동안 그와 지내던 가지가지 정경이 그림등 모양으로 어른어른 지나간다. <초파일 탑돌이할 때 맨 처음으로 마주치던 광경, 기절했다가 정신이 돌아날 제 코에 풍기던 야릇한 향기, 우레가 울고 악수가 쏟아질 적 불꽃을 날리는 듯한 그 뜨거운 입김들…….> 아사달은 고개를 또 한 번 흔들었다. 그제야 저 멀리 돈짜만 한 아사녀의 초라한 자태가 아른거린다. 주만의 모양을 구름을 헤치고 동등 떠오르는 햇발과 같다 하면, 아사녀는 쉼녘의 하늘에 반짝이는 별만 한 광채밖에 없었다.

물동이를 이고 차마꼬리에 그 빨간 손을 씻으며 배시시 웃는 모양, 이별하던 날 밤 그린 듯이 도사리고 남편을 기다리던 앓음앓음, 일부러 자는 척하던 그 가늘게 떨던 눈시울, 버드나무 그늘에서 숨기던 눈물들…….

그렇게 '주만'과 '몇 달' 동안 함께 했던 여러 가지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아사녀'의 초라한 자태가 아른거리기도 하는 '아사달'입니다. [A]가 '주만'의 모습에 대한 '아사달'의 상상이라면, [B]는 '아사녀'와의 추억을 떠올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skip' 가능 구간이라고 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아사녀'와 '주만'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아사달'의 감정에 공감해 주시면 충분해요.

아사달의 머리는 점점 어지러워졌다.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도 흔들린다. 휘슬레를 돌리듯 펄펄 돌다가 소용돌이치는 물결 속에서 조각조각 부서지는 달그림자가 이내 한 곳으로 합하듯이, 두 환영은 마침내 하나로 어우러지고 말았다. 아사달의 캄캄하던 머릿속도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다. 하나로 녹아들어 버린 아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사녀와 주만의 두 얼굴은 다시금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였다.

아사달은 눈을 번쩍 떴다. 설레던 가슴이 가을 물같이 맑아지자, 그 돌 얼굴은 세 번째 제 원불(願佛)로 변하였다. 선도산으로 뉘엿뉘엿 기우는 햇발이 그 부드럽고 찬란한 광선을 던질 제 못물은 수멸수멸 금빛 춤을 추는데 흥에 겨운 마차와 정 소리가 자지러지게 일어나 저녁나절의 고요한 못 득을 울리었다.

새벽만 하여 한가위 밝은 달이 홀로 정 자리가 새로운 돌부처를 비칠 제 정 소리가 그치자 온몸결이 잠깐 헤쳐지고 풍하는 소리가 부근의 적막을 한순간 깨트렸다.

- 현진건, 「무영탑」 -

이렇게 '아사달'을 계속 혼란스럽게 하던 '주만'과 '아사녀'의 얼굴은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합니다. 이는 <보기>에서 이야기했던 '사랑과 예술혼이 하나로 융합되어 신앙의 궁극이라는 새로운 경지에 이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여자 사이에서 '설레던' 마음은 맑아졌고, 차분하게 예술 작업에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인한 고뇌를 신앙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작품이었네요. '아사달'의 이러한 감정 변화를 민감하게 따라가면서 공감했다면 정말 잘 읽은 것이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9%	4%	5%	6%	6%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① 인물의 의식이 내적 갈등에 초점을 둔 서술 방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유종, 아사달의 내적 갈등이 핵심이었지.
해설	이 지문은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기준으로 앞쪽은 '유종', 뒤쪽은 '아사달'의 내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내적 갈등에 공감하면서 읽었던 과정이 있으니,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②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희화화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희화하는 무슨 소리냐.
해설	일단 '인물들 간의 대화'가 거의 없었고,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희화화'하는 부분도 찾을 수 없었죠?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신분이 낮은 인물의 발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아무도 낙관적이지 않았는데?
해설	'신분이 낮은 인물'이라면 아사달이나 아사녀를 말할 텐데, 이들 중 누구도 '낙관적 전망'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애초에 지문의 전체적인 주제와 너무 어긋나는 내용이네요.

④ 몰신주의에 빠진 세태가 탈속적 세계를 지향하는 인물의 비판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몰신주의 / 탈속에 대한 내용과는 무관하지.
해설	어떤 인물이 다른 인물들을 비판하는 것은 '유종'이 '당학파'를 비판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이 비판의 내용은 '화랑도'를 숭상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디. '몰신주의 / 탈속적 세계'와는 무관한 내용이었어요.

⑤ 권력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소위된 개인의 욕망이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신분 상승의 욕망은 나온 적이 없지.
해설	애초에 '권력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하려는 인물이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아사달'이 '주만'과의 사랑에 성공하면 '권력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할 수도 있겠지만, 지문 속 내용에 따르면 '아사달'이 '주만'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은 아주 순수한 사랑이었지, 저런 욕망 때문이 아니었어요. 허용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3%	14%	5%	73%

39. ①~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㉔

① ㉔은 신라를 '문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유종'이 인식하고 있는 대상이다.

㉔ 그네들의 한문이란 난신적자를 만들어 내기에 꼭 알맞은 것이거늘 이것을 좋아라하고 배우려 들고 퍼뜨리려 드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니냐.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유종이 당학파를 비판하는 이유지.
해설	'유종'은 '난신적자'를 만들어 내어 신라를 '문약'하게 만들 수 있는 '당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생각 심화

'문약'이라는 단어가 어색한 학생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문약(文弱)'은 '글에만 열중하여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나약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학'은 기본적으로 '학문'이기에, '유종'과 같은 '화랑도'를 숭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당학'에 빠지면 '문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화랑도'는 쉽게 설명하면 신라 시대의 'ROTC(학군단)'에 가깝거든요. 결국 '유종'은 공부와 군사훈련을 병행하면서 신체와 정신을 가다듬던 '화랑도'를 그리워하고, '당학'에 빠져 '문약'해지는 신라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② ㉔은 '유종'의 외로운 처지를 보여 주는 비유이다.

몇 해 전만 해도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이가 조정에 더러는 있었지만 어느 결엔지 하나씩 들썩 없어지고 인제는 ㉔ 무 밑둥과 같이 동그랗게 자기 혼자만 남았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말 그대로네.
해설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표현을 근거로 하면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

③ ㉔은 현재의 주류적 '기풍'을 거부하는 '유종'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㉔이 늙은 향도(香徒)에게 남은 오직 하나의 희망은 자기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구하는 것이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사윗감 구할 희망은 유종이 가지는 것 맞지.
해설	'유종'은 '당학'에 지질린 현재의 주류적 '기풍'을 거부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따르는 사윗감을 구하는 것을 유일한 희망으로 생각하는 '이 늙은 향도'는 바로 '유종'이었죠. 내용만 이해했다면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④ ㉔은 '유종'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원하는 대상이다.

벌써 수년을 두고 ㉔ 그럴 만한 인물을 내심으로 구해 보았지만 그리 험사리 눈에 뜨이지 않았다.